

신라 불탑에 새겨진 부조상 검토

경주지역 불탑을 중심으로

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목차

- I. 머리말
- II. 慶州地域 佛塔 浮彫像의 現況
- III. 佛塔 浮彫像의 종류와 각 圖像의 특징
- IV. 佛塔 浮彫像의 다양성 : 信仰, 雙塔, 位階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경주지역에 소재하는 신라 불탑 부조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경주지역 신라 불탑 부조상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경주지역에 불탑이 존재하거나 혹은 출토지(경주지역)가 비교적 분명한 탑부재만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두 19건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쌍탑인 예가사천왕사 동·서목탑을 포함하여 총 8건이다.

둘째, 불탑 부조상의 종류와 도상 특징, 그리고 그 조성시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경주지역 신라 불탑 부조상으로는 금강역사상, 사천왕상, 팔부중상, 십이지신상 등이 주를 이룬다. 물론 9세기 이후에는 불탑 탑신에 불상이 조각된 예도 확인되지만, 본고에는 논지전 개상 제외하였다. 그리고 해당 부조상의 현상과 그 도상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고, 각 부조상의 조성 시기는 기존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학계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인 편년을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라 불탑 부조상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신라 불탑 부조상이 왜 이렇게 다양한 도상과 형식, 그리고 배치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주지역 신라 불탑 부조상은 새로운 신앙의 도입과 유행, 쌍탑의 출현, 그리고 위계를 철저히 고려한 배치 등을 통해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양상樣相을 띠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I. 들어가는 말

신라 불탑(佛塔) 중에는 외면에 부조상(浮彫像)이 새겨진 예가 많다. 아울러 그 부조상의 도상과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석탑 탑신 사방에 새겨진 사면불[혹은 사방불]을 비롯해서, 금강역사상, 사천왕상, 팔부중상, 십이지신상, 범천·제석천상 등 다양한 불교 존상들이 불탑 외면에 조각된다. 불·보살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탑과 그 속에 봉안되는 사리를 수호하는 신장상(神將像) 혹은 천왕상이다. 또한 이러한 부조상은 불탑을 장엄함으로서 불탑의 신성성을 보다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 불탑에서 부조상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예는 선덕여왕3년(634) 조성된 분황사 석탑 탑신부의 금강역사상이다. 이와 함께 문무왕19년(679) 창건된 사천왕사 목탑 기단부에 장엄된 녹유벽전(綠釉甁塼)의 신장상이 있다. 8세기 이후부터는 신라 불탑이 이중기단에 삼층, 또는 오층 탑신을 가진 이른바 일반형 석탑으로 정형화되면서, 탑신부에 불상, 사천왕상, 범천·제석천상, 금강역사상이 새겨진 예, 그리고 기단부에 팔부중상이나 십이지신상이 새겨진 예 등 다양한 도상의 불교존상들이 불탑에 장엄된다. 특히 경주지역 신라 불탑에서는 사천왕상, 팔부중상, 십이지신상 등의 부조상이 새롭게 등장한다.

불탑 부조상은 탑이라는 구조물에 표현되는 것이므로 존상의 위치, 존상들 간의 구성이나 그 관계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신라 불탑 부조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신라 불탑 부조상의 현황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은 부조상의 도상과 각 도상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불탑 부조상의 도상과 배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검토하고, 아울러 부조상 배치에 있어 각 존상들의 위계(位階)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경주지역 불탑 부조상의 현황

현재 경주지역에 남아 있는 신라 불탑은 대부분 석탑이다. 하지만 최근 활발한 발굴성과를 통해 목탑 터나 전탑 터도 종종 확인되고 있다. 황룡사, 분황사, 사천왕사, 망덕사 등을 통해 대체적으로 7세기 후반까지는 목탑이나 전탑[조적형 석탑(造積形 石塔)]이 많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82년경 감은사 동·서삼층석탑이 조성된 후에는 신라에서 석탑이 정형화되면서, 고선사 삼층석탑(7세기 후반), 나원리 오층석탑(7세기 말), 황복사 삼층석탑(706년경), 불국사 삼층석탑(751년경)과 같은 일반형 석탑이 주를 이룬다. 물론 7세기 이후에도 목탑과 전탑은 계속해서 축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탑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주지역에 분포하는 불탑 중 그 외면에 금강역사상, 사천왕상, 팔부중상, 십이지신상 등 다양한 불교존상이 조각된 예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1층 탑신부에 불상이 새겨진 예도 가끔 확인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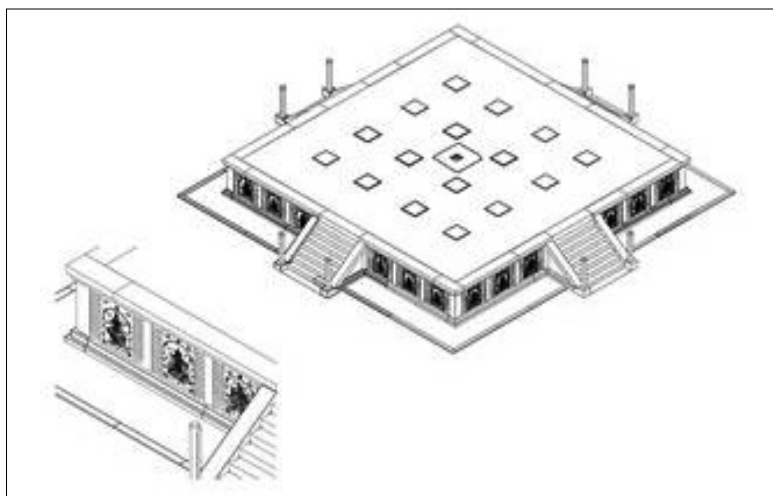
1) 본고의 내용이 주로 무장형 신장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佛像의 사례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사진 1〉 분황사 석탑

현존하는 신라 불탑 부조상 중 최고(最古)는 분황사 석탑의 금강역사상이다(사진1). 분황사 석탑은 선덕여왕3년(634) 사찰 창건 당시에 함께 축조된 것으로 생각한다.²⁾ 이 탑은 벽돌모양으로 다듬은 석재를 쌓아올려 조성한 석탑으로 전탑과 외형이 유사하여 ‘모전석탑(模塹石塔)’으로도 불린다. 금강역사상은 1층 탑신부 각 면 중앙에 마련된 문비(門扉) 좌우에 각 1구씩 배치되었으며, 4쌍(8구) 모두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또한 분황사 석탑 금강역사상과 유사한 상으로 황룡사지 동편 폐사지의 금강역사상이 있다. 현재 탑은 도괴되어 그 형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지만, 절터 주변으로 금강역사상[금강역사상을 새긴 석탑부재]이 4구 잔존한다. 현존하는 금강역사상의 모습을 참고할 때, 전체적으로 분황사 석탑과 동일한 조적형 석탑의

2) 『三國史記』, 新羅本紀 善德王三年



〈사진 2〉 사천왕사 목탑 기반 모식도

탑신에 금강역사상이 장엄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³⁾ 그 외 경주지역에 금강역사상이 조각된 불탑으로는 경주 장항리사지 오층석탑과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이 있으며, 아울러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관된 경주시 하동 출토 석탑부재 등이 있다.

문무왕19년(679) 창건된 사천왕사는 사역 중심 동·서편에 각각 목탑이 위치하는 쌍탑가람(雙塔伽藍)이다. 특히 사천왕사는 신라에서 쌍탑이 처음 조성되는 사찰이라 더욱 주목된다. 2006~2012년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를 통해 동·서 목탑 기반에 장엄된 녹유벽전이 노출되었는데, 이 녹유벽전에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신장상이 조각되었다(사진2, 3). 이 신장상의 도상에 관해서는 사

3) 김지현, 「경주 구황동 塔址의 石塔材 고찰 : 異形石塔設에 대한 再論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제20집, 2015, pp. 7-34.

천왕상, 팔부중상 등으로 추정되다가, 최근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3가지 유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논의되었다.⁴⁾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이 3종의 신장상을 불교의 여러 신왕(神王) 중 탑을 수호하는 ‘호탑선신(護塔善神)’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장상의 존명(尊名)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발굴조사결과 3가지 유형의 벽전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서남북 방위를 수호하는 사천왕상이나 8구의 상이 짝을 이루는 팔부중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천왕사 녹유벽전의 신장상은 동아시아 불교미술에 있어 매우 독특한 도상이자, 특수한 예로 볼 수 있다.



〈사진 3〉
사천왕사 목탑 기단 녹유신장벽전(B형)

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 2012 ; 최성은, 「통일신라 사천왕사 녹유소조신장상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신라사학보』26, 2012, pp. 165-202, 3)

5) 임영애, 「사천왕사지 塑造像의 尊名」, 『미술사논단』 27, 2008, pp. 7-37.

한편 경주지역 분포 신라 일반형 석탑 외면에는 사천왕상, 팔부중상, 십이지신상 등과 같은 신장상이 장엄된 예가 많다. 특히 부조상은 대체적으로 8세기 이후에 제작된 불탑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먼저 사천왕 부조상이 조각된 예로는 원원사지(遠願寺址) 동·서삼층석탑, 황룡사 서편사지 동·서삼층석탑, 피막곡 삼층석탑, 남산 승소곡 삼층석탑 등이 대표적이다. 이 불탑의 사천왕상들은 모두 갑옷과 무기를 든 무장형(武將形)이며, 1층 탑신부 네 면에 부조로 조각되어 불탑과 불탑 속에 봉안된 사리 수호의 역할을 한다.

팔부중상 역시 경주지역 석탑 기단부에서 많이 확인된다. 경주 남산의 창림사지(昌林寺址) 삼층석탑, 전 담엄사지(傳曇嚴寺址) 출토 석탑재, 인왕동사지 출토 석탑재, 남산동 삼층석탑(서탑), 숭복사지 동·서삼층석탑, 창림사 서편사지 석탑재, 전 사제사지(傳四祭寺址) 석탑재 등이 있다. 그 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등에 소재한 석탑재에서 팔부중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인왕동사지, 숭복사지, 창림사 서편사지의 경우 쌍탑가람으로 추정하는데, 두 탑 모두에서 팔부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지역 소재 불탑 팔부중상의 경우 대부분 석탑 상층기단 면석에 위치하는데, 기단 한 면에 탱주(撐柱)를 중심으로 좌우 두 구씩 총 8구가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십이지신상은 신라 불탑 보다는 신라 석실분 중 왕릉급 무덤의 호석(護石)에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탑에서는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과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관된 경주 하구리 출토 석탑재 등에서 십이지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원사지 삼층석탑의 경우는 초층탑신석 사방에 사천왕상, 상층기단 면석에 십이지신상이 조각되었

는데, 신라 불탑 중 이러한 구성배치는 원원사지 삼층석탑이 유일하다. 이상 소개한 불탑 부조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경주지역 소재 불탑 부조상 예(출토지 분명)

연번	탑명	시기	도상	조각 위치	재료	비고
1	분황사 석탑	634년경	金剛力士像	초층 탑신	석재	문비석
2	사천왕사 동서목탑	679년경	신장상 (존명불확실)	상층기단 면 (쌍탑)	소조	녹유
3	석장사 전탑(?)	7세기 후반	사천왕상, 신장상 등	?	소조	
4	황룡사 동편 폐탑지	7세기 후반	金剛力士像	초층 탑신(추정)	석재	문비석
5	강항리사지 동서오층석탑	8세기 전반	金剛力士像	초층 탑신 면석 (쌍탑)	석재	
6	만호봉사지 석탑재	8-9세기	金剛力士像	초층 탑신부	석재	
7	서악동 삼층석탑	9세기	金剛力士像	초층 탑신부	석재	
8	원원사 동서삼층석탑	8세기	사천왕상	초층 탑신부 (쌍탑)	석재	기단 십이지
9	황룡사 서편사지 동서삼층석탑	9세기	사천왕상	초층 탑신부 (쌍탑)	석재	
10	피막곡사지 삼층석탑	9세기	사천왕상	초층 탑신부	석재	
11	남산 승속곡사지 삼층석탑	9세기	사천왕상	초층 탑신부	석재	기단 안상
12	남산 창림사 삼층석탑	8세기	八部衆像	상층 기단부	석재	1층탑신 문비
13	傳담엄사지 석탑	8세기	八部衆像	상층 기단부	석재	
14	천관사지 석탑재	8세기 말- 9세기 초	八部衆像	상층 기단부	석재	
15	남산동 서석탑	8세기 말- 9세기 초	八部衆像	상층 기단부 (쌍탑)	석재	
16	송복사 동서삼층석탑	9세기	八部衆像	상층 기단부 (쌍탑)	석재	
17	傳인용사지 동서삼층석탑	9세기	八部衆像	상층 기단부 (쌍탑)	석재	
18	창림사 서편사지 동서삼층석탑	9세기	八部衆像	상층 기단부 (쌍탑)	석재	
19	傳사제사지 석탑	9세기	八部衆像	상층 기단부	석재	

III. 불탑 부조상의 종류와 각 도상의 특징

경주지역 소재 신라 불탑 부조상은 앞서 본 것과 같이 7세기를 시작으로 신라 멸망까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도상과 형식으로 표현된다.⁶⁾ 본장에서는 불탑 부조상을 각 존상별로 분류하여 그 도상적 특징과 대략적인 조성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⁷⁾

1. 금강역사상

신라 불탑에서 금강역사상이 조각된 예는 현재 10여건 확인된다. 그 중 경주지역 소재 불탑으로는 분황사 석탑(634년경)을 포함하여 5건이다.

먼저 분황사 석탑의 금강역사상은 1층 탑신 중앙 문비 좌우에 쌍으로 배치되었다(사진4). 탑신과 분리된 별개의 석재에 고부조로 새긴 금강역사상은 각 면에 2구씩 네 면에 총 8구가 있다. 문비 좌우에 서서 문 안쪽의 모든 것을 호위하는 금강역사상은 실제 문비가 있거나 혹은 문비가 모각된 초층탑신에 주로 나타난다. 특히 634년경 조성된 분황사 석탑의 금강역사상은 중국 북제·주(北齊·州) 혹은 수대(隋代) 금강역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넓고 둥근 이마에 돌출된 광대뼈, X자형 천의 등의 모습은 중국 북위시대 금강역사

6) 물론 7세기 이전에도 佛塔에 浮彫像이 장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예가 없어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7세기를 그 시작으로 보았다.

7) 본고에서 제기한 조성시기와 편년 등은 그동안의 연구성과 등을 참고하여,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조성연대를 제시한 것이다.

8) 문명대, 「한국탑부조(조각)상의 연구 (1)-신라 인왕상(金剛力士像)고」, 『불교미술』 4, 1979, p. 226



〈사진 4〉 분황사 석탑 금강역사상

상에 보이기 시작하여, 복제·주에 와서는 목이나 가슴 근육을 조금 더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특징을 분황사 금강역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분황사 석탑의 금강역사상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탑 부조상이라는 점과 함께 그 조성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신라불교조각사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아울러 신라 7세기 전반 불교조각의 기준 작으로서, 도상이나, 형식, 양식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된다.

황룡사 동편 폐사지의 금강역사상 역시 분황사 석탑과 동일한 형식으로 석탑 1층 탑신부 네 면에 각 2구씩 총 8구가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절터에 4구, 경주박물관에 이관된 2구를 합쳐 6구

9) 1933년에 간행된 『東京通志』佛宇條 “…又東南古塔已壞 石堆有金剛力士刻像及石屏八…”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金剛力士像이 조각된 石屏 8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진 5〉 황룡사 동편사지 금강역사상

가 확인된다(사진5)⁹⁾. 석탑에 배치되는 구성은 분황사 석탑의 금강역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이해된다.¹⁰⁾ 특히 이 두 곳의 금강역사상 모두 상단부를 깨서 문미석(門眉石)이 놓이는 부분을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을 통해 두 곳의 금강역사상이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위치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역사상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황룡사 동편 폐사지의 금강역사상 역시 분황사 석탑 금강역사상과 유사하게 상당히 고부조로 조각되었고, 상반신은 나신(裸身)이며, 지물 없이 권법 자세를 취한다. 다만 양식적으로는 분황사 석탑의 금강역사상이 황룡사 동편 폐사지의 금강역사상보다 시기적으로 이른 특징을 보인다. 특히 분황사 석

10) 김지현, 앞의 글, 2015, p. 18.

탑 금강역사상은 X자형의 천의와 같은 고식의 특징이 보이는 반면, 황룡사 동편 폐사지의 금강역사상은 신라 7세기 후반 이후에 나타나는 2단의 U자형 천의자락을 몸에 두르고 있다. 또한 분황사 석탑의 금강역사상은 신체가 짧아 비교적 동형(童形)으로 조각된 것에 비해, 황룡사 동편 폐사지의 금강역사상은 보다 신체가 장대해진 모습으로 변했다. 이러한 특징은 황룡사 동편 폐사지 금강역사상이 분황사 석탑 금강역사상보다 양식적으로 진전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황룡사 동편 폐사지 금강역사상의 조성시기는 대략 7세기 말로 추정할 수 있다.

경주 장항리 동·서오층석탑의 금강역사상은 분황사나 황룡사 동편 폐사지 금강역사상에서 더욱 발전한 형식이다. 아울러 신라 일반형 석탑에서는 처음으로 금강역사상이 등장한 예라고 할 수 있다<사진6>.



<사진 6> 장항리사지 오층석탑 금강역사상

장항리 동·서오층석탑의 금강역사상 역시 앞서 살펴 본 두 곳의 금강역사상과 동일하게 석탑의 초층탑신에 모각된 문비 좌우에 위치한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금강역사상들이 탑신과 분리되어 별석(別石)으로 조성된 것에 반해, 장항리 동·서오층석탑의 경우 금강역사상이 초층탑신석에 낮은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금강역사상의 상체는 나신에 1단의 U자형 천의가 몸에 감겨져 있다. 하체는 발목을 덮은 긴 군의(裙衣), 혹은 짧은 군의 등 각 상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의를 착의하였다. 머리는 높게 올린 상투머리에 보주(寶珠)와 작은 꽃으로 장식된 띠를 묶거나 혹은 머리에 화관(花冠)을 착용한 상도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장항리 동·서오층석탑의 금강역사상에서는 지물이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각 면의 금강역사상은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금강저(金剛杵)를 쥐거나 들고 있으며, 그 외 삼지창 같은 지물도 보이고, 또 다른 상은 지물 없이 권법자세만 취한 한 예도 있다. 대좌는 서탑 금강역사상의 경우 모두 연화좌를 밟고 있지만, 동탑 금강역사상은 암좌(岩座)를 밟고 있어 동·서탑 금강역사상의 도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뒤에 가서 이야기 하겠지만 이러한 쌍탑 부조상에 있어 동·서탑 부조상의 차이는 팔부중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¹¹⁾ 이 탑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8세기 초~전반으로 보는 견해와 8세기 중엽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¹²⁾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경주시 하동 출토 금강역사상은 하

11) 동·서탑 金剛力士像은 조각기술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 이러한 차이를 각 浮彫像을 제작한 장인 기술의 차이로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 시대를 달리 보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찰 내 동·서탑의 배치 등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플랜으로 동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양식적으로 차이를 보일만큼 동·서탑의 조성시기가 서로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의 모서리 기둥에 2구씩의 금강역사상이 고부조로 조각되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금강역사상이 모서리 기둥에 부조로 조각된 예가 없어, 명확히 어떠한 구조의 탑이었는지는 단정하기 힘들다. 더욱이 현재 돌기둥은 금강역사상의 굽은 자세의 이미지대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2차 가공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즉, 4개의 모서리 기둥을 붙이면 각 면마다 2구씩 금강역사상이 배치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석재 기둥들은 1층 탑신석의 네 모서리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4개의 기둥 모두 윗면은 평평하게 치석되어 있는데, 아마도 탑신석을 추가로 올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석탑재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경주 읍성 출토 탑신석을 들 수 있다. 이 탑신석은 4매의 석재를 결합한 형태인데, 문비를 중심으로 좌우에 신장 또는 명왕상(明王像)을 조각하였고, 탑신 모서리에 우주(隅柱)는 별도로 조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하동 출토 금강역사상 역시 이러한 형태의 탑재에서 2차 가공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변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강역사상의 모습은 근육질 몸매에 상반신은 나신이며 짧은 균의를 착의하고, 천의는 어깨 뒤로 돌아가 마치 두광처럼 보이는 효과를 한다. 현재 탑의 모습도 알 수 없고, 아울러 탑재는 2차 가공 되어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조성시기를 가늠하기 힘들지만, 대략 8세기 후반~9세기 전반

-
- 12) 大西修也, 「獐項里 廢寺出土의 石造如來坐像의 復原과 造成年代」, 『考古美術』125, 한국미술학회, 1975, pp. 23-24 ; 고유섭, 「慶州 獐項里 廢寺址 東西伍層石塔」, 『고유섭전집1』, 동방문화사, 1994, p. 285 ; 문명대, 「한국 탑浮彫像 연구(1)-신라 인왕상(金剛力士像) 고」, 『불교미술』4, 동국대학교박물관, 1979, pp.95-96 ; 장충식 「統一新羅 石塔 浮彫像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1982, pp. 127-128 ; 신용철, 「統一新羅 石塔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p. 157 ; 김지현, 「경주 장항리사지 오층석탑의 浮彫像 고찰」, 『동양미술학회』12, 2011, pp. 7-30 등 참조



〈사진 7〉 서악동 삼층석탑 금강역사상

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³⁾

마지막으로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은 전탑형 석탑(塼塔形 石塔)으로 8개의 큰 괴석으로 기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삼층의 탑신을 올렸다.¹⁴⁾ 1층 탑신부 네 면 중 남쪽 면에만 감실형 문비(龕室形 門扉)를 마련하고, 그 좌우에 금강역사상 2구를 조각하였다(〈사진7〉). 금강역사상은 높은 암좌를 밟고 있고, 1구는 금강저를 들고, 다른 1구는 지물 없이 권법자세만 취한다. 앞서 살펴본 불탑들은 모두 금강역사상이 불탑 네 면에 배치되지만, 이 불탑의 경우 남면에만 금강역사상을 조각하여 서로 다른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초층탑신석 한 면에

13) 임영애, 「신라 佛塔 탑신(塔身) 浮彫像의 추이」, 『先史와 古代』 제35집, 2011, p. 236.

14) 서악동 삼층석탑과 같은 형식의 탑을 크게는 塼塔形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분황사 석탑과 같이 돌을 쌓아 올리는 造積式 塼塔形 石塔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구분된다.

만 금강역사상이 배치되는 예로는 안동지역의 조탑동 전탑의 금강역사상, 안동 전법림사지(傳法林寺址) 금강역사상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탑들 역시 금강역사상이 새겨진 면에 문비가 함께 마련되는 것은 앞의 사례들과 공통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서악동 삼층석탑 조성 시기는 대략 9세기경으로 볼 수 있으며, 금강역사상 역시 같은 시기로 추정한다.¹⁵⁾

2. 四天王像

신라 불탑에서 사천왕상이 부조된 예는 대략 20여건이 알려져 있다. 경주지역에는 출토지가 분명한 불탑의 사천왕상이 4건 정도가 확인되며, 국립경주박물관 1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1건은 출토지가 불분명한 탑재들이다. 그 외 경주박물관 소장 석장사지(錫杖寺址) 출토 전편(塼片) 중에는 탑을 들고 있는 다문천왕상(多聞天王像)이 있다.¹⁶⁾ 먼저 석장사지 출토 다문천왕상은 같이 출토된 다른 전편들과 함께 석장사 전탑에 장엄되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⁷⁾ 하지만 실제 탑의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터 발굴조사에서 전탑의 위치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불탑에 장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주지역 불탑에서 사천왕상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분명한 예는 8세기 중엽경에 조성된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이다. 동·서삼층석탑의 초층탑신석 네 면에 환조에 가깝게 고부조로 사천왕상을 조각

15) 김지현, 「新羅 佛塔의 형식과 金剛力士 浮彫像 研究」, 『文物研究』 제25집, 2014, p. 48.

16)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錫杖寺址』 발굴조사보고서, 1994.

17) 김지현,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文物研究』 17, 2010, p. 86.



〈사진 8〉 원원사지 삼층석탑 사천왕상



〈사진 9〉 황룡사지 서편사지 석탑재 사천왕상

하였다(사진8). 사천왕상의 지물은 칼, 창, 보탑 등으로 동·서탑이 서로 동일한데, 단지 서탑의 북방 다문천왕 오른 손에 보주가 있다는 점만 다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원원사지 동·서탑의 경우 상층기단 네 면에 십이지신상을 조각하였다. 신라 불탑에서 초층탑신에 사천왕상, 상층기단에 십이지신상이 배치된 사례는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이 유일하다. 더욱이 신라 불탑 십이지신상의 경우 대부분 하층기단이나 지대석 등에 매우 작게 저부조로 조각되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의 십이지신상은 상층기단 면석에 고부조로 조각되어 탑신에 조각된 사천왕상과 더불어 장엄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 석탑의 조성 시기는 양식적으로 보았을 때, 대략 8세기 중~후기로 추정한다.¹⁸⁾

신라 최대 가람인 황룡사 서편으로 쌍탑가람의 작은 절터(구황동

18) 임영애, 앞의 글, 2011, p. 238 ; 김지현, 앞의 글, 2010, p. 87.

폐사지)가 있다. 1984~1986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동·서탑지를 확인한 바 있다.¹⁹⁾ 현재 절터에는 모두 5개의 석탑재가 있는데, 옥개석 2개, 탑신석 1개, 지대석과 갑석 각 1개씩이다. 이 탑재 중 사천왕상이 조각된 탑신석은 동탑의 부재이다(사진9) 물론 서탑에도 동탑과 같이 사천왕상이 조각된 탑신석이 있었을 것이다. 잔존하는 탑신석의 사천왕상을 살펴보면, 4구 모두 머리에는 투구[혹은 보관]를 쓰고 있으며, 갑옷을 입고 무장(지물: 칼, 삼고저, 탑 등)을 한 상태이다. 발아래는 1구씩의 악귀를 밟고 있는데, 구름 위의 악귀는 누워있는 방향도 깔려있는 모습도 모두 제각각이다. 전체적으로 원원사지 삼층석탑의 사천왕상보다는 저부조로 조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조각이 선명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생령좌(生靈座)의 모습을 매우 자유롭게 잘 표현하였다. 이 석탑부재와 비교할 수 있는 예로는 현재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정원에 전시 중인 쌍탑 탑신석 2기가 있다. 쌍탑인 점, 4단의 옥개받침, 그리고 사천왕상 아래 1구의 악귀로 나타난 생령좌 등에서 두 탑의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황룡사 서편 폐사지 쌍탑의 사천왕상과 경주박물관 소장 석탑재의 사천왕상은 대략 8세기 후반~9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⁰⁾

경주 천군동 피막곡사지에는 8매의 석탑재가 흩어져 있다.²¹⁾ 아직 주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명치 않지만, 드러나 있는 탑 유구로 볼 때 일탑가람의 사찰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석탑은 삼층석탑으로 9세기 중엽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한다.²²⁾ 이곳의 사천왕상은

1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지역 폐사지 기초조사연구』, 2012, pp. 112-119.

20) 임영애, 앞의 글, 2011, pp. 238-239.

2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12, pp. 183-185.

22) 신용철, 「경주 천군동 피막곡사지 석탑의 고찰」, 『慶州文化』 9, 2003, pp. 106-134.



〈사진 10〉 경주 피막곡사지 삼층석탑 사천왕상



〈사진 11〉 북쪽 다문천왕 도면

8세기 석탑의 사천왕상보다 조각의 깊이가 보다 얕아졌으며, 입체감 보다는 오히려 평면적인 요소가 더욱 부각된다(사진 10, 11). 4구의 사천왕상 중 현재 북쪽의 다문천왕상과 남쪽의 증장천왕(增長天王像)상이 비교적 상태가 좋다. 사천왕상을 살펴보면, 먼저 각 상마다 두광(頭光)을 표현한 것이 처음 확인되며, 악귀가 아닌 도식화된 구름 위에 서있는 모습도 앞서 소개한 8세기 사천왕상과는 구분되는 특징이다. 현재 육안으로 확인되는 지물은 증장천왕상의 칼과 다문천왕상의 보탑 정도이다.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정원에 전시되어 있는 경주 남산 승소곡에서 옮겨 온 삼층석탑 역시 초층탑신에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 삼층석탑은 일제강점기 발견되어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²³⁾ 이 석탑의 사천왕상은 특이하게 안상(眼象) 안에 조각되어 있는데 경주지

23) 小場恒吉, 『慶州南山 佛蹟』, 조선총독부, 1940.

역에서는 유일한 예이다. 피막곡사지 삼층석탑 사천왕상과 유사하게 저부조로 조각되었으며, 평면적이면서 안상 등의 장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9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八部衆像

팔부중상은 신라 불탑에 등장하는 부조상 중 단연 대표할 만 한 존상이다. 특히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주지역 불탑 부조상 19건 중 팔부중상은 8건으로, 다른 존상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를 차지한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금강역사상과 사천왕상은 불탑 탑신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팔부중상의 경우 신라 불탑에서는 모두 기단부에 배치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팔부중상이 불탑 상층기단에 등장하는 것은 신라 불탑에서 창안된 독특한 구성이며, 다른 나라 불탑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가 힘든 예이다.

경주지역 신라 불탑 팔부중상 중 그 조성시기가 가장 이른 예는 경주 남산 창림사지 삼층석탑의 팔부중상이다. 창림사지 삼층석탑의 축조 시기는 대략 8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²⁴⁾ 특히 창림사지 삼층석탑의 팔부중상은 불탑에 조각된 팔부중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크고 고부조로 조각되어 있어 신라 통일기 팔부중을 대표할 만하다(사진 12, 13). 현재 4구는 결실되었고, 남면 1구, 서면 2구, 북면 1구 등 4구만 남아 있다. 남아 있는 팔부중상을 살펴보면, 남면에는 사면팔비(三面八臂)의 아수라상(阿修羅像)이 있으며, 서면에는 향우(向右)는

24) 신용철, 「慶州 南山 昌林寺址 三層石塔의 研究: 石塔의 編年과 八部衆像 成立」,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5) 신용철, 「統一新羅 八部衆像의 考察」,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제24집, 2003, p. 155.



〈사진 12〉 창림사지 삼층석탑



〈사진 13〉 석탑 남면 아수라상

용상(龍像)이고, 향좌(向左)는 천상(天像)으로 추정한다. 북면의 상은 도상적 특징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최근 건달바상(乾闥婆像)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²⁵⁾ 따라서, 결실된 상은 야차(夜叉), 가루라(迦樓羅), 긴나라(緊那羅), 마후라가(摩睺羅伽) 등이다. 잔존하는 네 구의 팔부중상은 모두 갑옷을 입고 있는 무장형으로, 금강저, 보주, 해골, 보검 등의 지물을 가지고 있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이 탑의 초층 탑신석에는 문비가 조각되어 있는데, 앞서 소개한 석탑 문비 좌우에 항상 등장했던 금강역사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는 전 담엄사지에서 출토된 팔부중상 2기가 있다(사진 14, 15). 이 팔부중상 역시 규모가 크고 고부조로 조각되었으며, 또한 면석 1매에 부조상 1상을 조각하여 창림사지 석탑 팔부중상과 비교할 만한 중요한 작품이다. 첫 번째 면석에는 3면8비의 아

25) 신용철, 「統一新羅 八部衆像의 考察」,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제24집, 2003, p. 155.



〈사진 14〉 담엄사지 출토 아수라상



〈사진 15〉 담엄사지 출토 건달바상

수라상이 조각되었으며, 또 다른 면석에는 머리에 사자관을 쓰고 있는 건달바상이 있다. 이 팔부중상 역시 아수라상은 3면8비로 나타내었고, 또한 건달바상은 지물 없이 무인(無印)을 하고 있어 창림사지 삼층석탑의 팔부중상과 도상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²⁶⁾

천관사지(天官寺址)에서 옮겨온 팔부중상 1기가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비교적 고부조로 조각된 이 상은 가루라상으로 추정한다. 전체적으로 천의의 날림이나 자세가 자유롭고 얼굴과 신체에서 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등 8세기 팔부중상의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한편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에 소장 중인 팔부중상은 면석의 크기나 돌 색깔, 그리고 조각수법 등에서 앞서 살펴 본 천관사지 출토 팔부중상과 유사하여, 동일석탑의 부

26) 신용철은 다음 논문에서 8세기 석탑 八部衆像과 9세기 석탑 八部衆像의 도상변화에 대해 잘 정리해두었다(신용철, 「新羅 八部衆 圖像 전개에 있어 雙塔의 역할」, 『정신문화연구』 33권, 2014, pp. 139-140).



〈사진 16〉 남산동사지 (서)삼층석탑 아수라 · 건달바

재로 추정할 수 있다.²⁷⁾

경주 남산동사지 서삼층석탑은 일제강점기 간단한 보수를 제외하고는 큰 도괴(倒壞)가 없었던 탑이다. 따라서 상층기단에 조각된 팔부중상 역시 원래의 모습과 위치를 그대로 잘 유지해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석탑의 팔부중상은 앞서 소개한 예들과는 달리 면석 1매에 2개의 상이 조각되어 있다. 즉 면석 중앙의 탕주를 중심으로 좌우에 1구씩 상을 배치하였는데, 결과적으로 1매의 면석에 2개의 팔부중상이 조각됨으로서 앞선 팔부중상보다 크기가 작아진다(사진 16). 또한 팔부중상이 상대적으로 얇게 조각되어 저부조이면서 평면적이며,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생략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27) 신용철, 앞의 글, 2003, p. 167.



〈사진 17〉 송복사지 동삼층석탑 팔부중상 아수라 · 건달바

불구하고 상들의 전체적인 도상은 창림사지 석탑의 팔부중상 도상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 8세기 말~9세기 초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복사지 동·서삼층석탑 상층기단에는 비록 부분적으로 결실은 있지만, 현재 팔부중상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물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탑은 도괴되어 부재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으나, 1965년 새롭게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당시 철저한 고증 없이 복원함으로서 기단 면석을 잘못 배치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²⁸⁾ 이 탑의 팔부중상이 신라 쌍탑에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이 탑의 팔부중상에서는 앞선 시기에 볼 수 없는 도상들이 나타나는

28) 장충식, 『新羅石塔研究』, p. 182; 신용철, 「통일신라 八部衆像 고찰」, p.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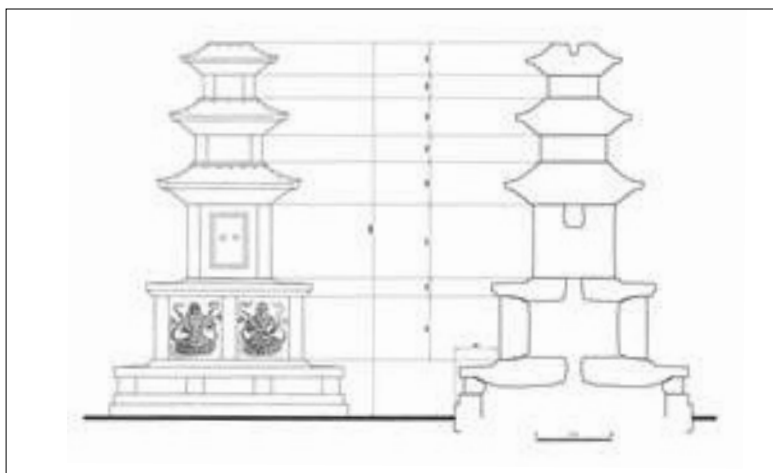


〈사진 18〉 인왕동 사지 출토 팔부중상

데, 대표적으로 아수라상의 경우, 이전의 도상과 같이 3면8비의 모습을 유지하지만 두 손을 합장한 모습은 새롭게 나타나는 특징이다(사진 17). 합장한 아수라상은 9세기 전반 이후 또 새롭게 나타나는 3면 6비의 아수라상에서는 항상 보이는 특징이다. 따라서 숭복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팔부중상은 신라에 새로운 팔부중 도상이 등장하는 첫 사례로 추정할 수 있다.

2002~2011년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조사한 인왕동사지[傳 仁容寺址]에서 팔부중이 새겨진 석탑 면석 1매가 출토되었다(사진 18, 19). 최근 연구성과를 통해 이 팔부중상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경주 출토 팔부중 면석이 동일 석탑의 부재로 밝혀졌다.²⁹⁾ 발굴 출토된 면석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면석을 통

29) 신용철, 「국립박물관 소장 慶州출토 八部衆面石의 원소재지 검토」, 『美術史論壇』29, 2009, pp. 129~149.



〈사진 19〉 인왕동 사지 삼층석탑 복원 모식도

해 확인된 인왕동사지 팔부중상은 아수라와 건달바가 각 2구씩 천과 가루라가 각 2구씩, 야차와 용이 각 1구씩이다. 긴나라와 마후라가는 2쌍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왕동사지 동·서삼층석탑 역시 숭복사지 동·서삼층석탑과 마찬가지로 두 탑 모두 상층기단에 팔부중상이 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왕동사지 출토 팔부중상 역시 1매의 면석 중앙에 탱주를 두고 그 좌우에 각 1구씩 존상이 배치되었다. 또한 도상적으로는 아수라상의 경우 앞에서 보았던 3면 8비에서 3면 6비로 단순화되었다. 3면 6비의 아수라상은 9세기 팔부중상에서 나타나는 도상적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리고 건달바상의 경우는 비파[箜篌]를 들고 있는데, 8세기 작으로 판단되는 창림사지나 담엄사지 건달바상과 같이 지물 없이 무인(無印)을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도상적 특징을 통해, 인왕동

사지 동서삼층석탑 팔부중상의 조상연대는 9세기 전~중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³⁰⁾

4. 十二支神像

경주지역에 소재하는 불탑 중 십이지신상이 조각된 예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이 있다. 또한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경주 하구리 출토 십이지신상 면석 역시 크기는 작지만 불탑 기단에 장엄되었던 십이지신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존하는 두 십이지신상 모두 석탑 상층기단에 장엄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석탑에서는 이러한 배치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주지역의 불탑 십이지신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의 십이지신상은 상층기단 1면에 3구씩 배치되어, 다른 석탑의 십이지신상에 비해 규모도 크고 조각기법도 훨씬 뛰어나다(사진 20). 특히 모든 신상(神像)들이 평복차림으로 연화좌 위에 차분히 앉아 있는 모습은 고분의 호석이나 다른 지역 불탑에서 보이는 무장형 십이지신상과는 전혀 다른 계통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어깨 위로 휘날리는 천의자락은 앞서 살펴본 금강역사상의 천의자락처럼 매우 운동감 있게 표현되어 차분한 모습의 신상과는 매우 대비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원원사지 불탑 십이지신상은 탑신의 사천왕상과 마찬가지로 고부조이면서 세부표현이 분명한 것을 볼 때, 사천왕상과 동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傳仁容寺址』 발굴조사보고서, 2012.



〈사진 20〉 원원사지 삼층석탑 십이지신상



〈사진 21〉 하구리사지 출토 십이지신상

하구리 출토 십이지신상은 각 상들 옆에 석탑 면석의 기둥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모각되어 있어 석탑 상층기단 면석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 닭, 양, 용, 말 등 다섯 구가 전한다(사진 21).³¹⁾ 현재 남아 있는 모든 상들은 입상이며, 모두 왼쪽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있다. 소매가 긴 도포식의 평복을 착용하였고, 각 상마다 창, 칼, 공양물과 같은 다양한 지물을 들고 있다. 하구리 출토 십이지신상 역시 원원사지 석탑 십이지신상과 마찬가지로 석탑 상층기단 면석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하구리 출토 십이지신상은 현재 탑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조성연대를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각 상의 표현이 저부조이면 평명성이 강해 9세기 중엽 이후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31) 이 상들은 일제강점기 발견되어,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을 거쳐 현재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IV. 불탑 부조상의 다양성 : 신앙, 쌍탑, 위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라 불탑 부조상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신앙(信仰), 쌍탑(雙塔), 위계(位階)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부조상의 존상 변화, 불탑 기단 팔부중상의 도상 문제, 그리고 탑신 부조상과 기단 부조상의 위계 문제를 함께 다루어보고자 한다.

1. 탑신 부조상의 존상 변화 : 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경주지역 불탑 사례를 볼 때, 탑신의 부조상이 8세기 중기를 기점으로 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대체된다. 물론 8세기 후기 이후에도 금강역사상이 전혀 조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아울러 사천왕상 역시 반드시 탑신에만 조성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경주 이외 지역에는 불탑의 상층기단에 사천왕상이 조각된 예도 적지 않다. 또한 경주 서악동 삼층석탑과 같이 9세기에도 탑신에 여전히 금강역사상이 조각된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8세기 중기부터는 경주지역의 불탑 탑신의 부조상이 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대체되는 것이 대세(大勢)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8세기 중기부터 탑신의 부조상이 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체되는 것일까? 이는 신라에서 사천왕신앙의 유행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金光明經』의 유행은 신라에서 사천왕신앙이 유행하고 전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³²⁾ 『金光明經』을 살펴보면 「四天王品」과 같은 별도의 장을 만들어 사천왕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四天王品」에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 사천왕이 도와서 외적이 자연히 물러나 흠어지게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사천왕신앙에 호국적인 요소가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金光明經』이 언제 어떤 루트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三國史記』 신라본기 진흥왕 26년(565) 기록을 주목하기도 한다. 즉 565년 진(陳)에서 사신 유사(劉思)와 승려 명관(明觀)을 보내 예방할 때 불경 1,700여권을 함께 보냈는데, 이 경전 중에 『金光明經』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³⁴⁾ 특히 552년 陳의 승려 진제(眞諦)가 『金光明經』을 한역한 바 있어, 직후인 565년 陳에서 보내온 1,700여권의 불경 속에 『金光明經』이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1,700여권 속에 『金光明經』이 포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신라에서는 6세기 후반 사천왕상 조성은 물론이고, 그 어디에도 사천왕 신앙과 관련된 유적이나 행위 등을 찾아 볼 수 없어 재고(再考)할 여지가 있다.

『三國史記』 百濟本紀에는 의자왕 20년(660)에 ‘天王寺와 道讓寺의 탑이 진동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 기록을 통해 적어도 백제에는 660년 이전에 사천왕신앙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라에서는 이보다도 늦은 679년 사천왕사가 창건됨으로서 사천왕 신앙이 처음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³⁵⁾

사천왕사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三國遺事』 문무왕법민(文武王法

32) 『金光明經』은 북량의 담무참이 417년 번역한 『金光明經』 4권(T663), 수 보귀가 597년 여러 가지의 번역본을 통합한 『合部金光明經』 8권(T664), 당 의정이 703년에 번역한 『金光明最勝王經』 10권(T665)가 있다. 그 외 陳의 진제(499-596)와 後周의 사나굴다(523-600)도 한역한 것으로 기록되지만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33) 『合部金光明經』, 卷第五 四天王品 第十(大正藏 권16, 382c)

34) 심효섭, 「신라 사천왕신앙의 수용과 전개」, 『동국사학』30, 1996, p. 125.



〈사진 22〉 사천왕사지 발굴조사 전경

敏)條에 전한다.³⁵⁾ 나당전쟁이 있던 670년경 문무왕은 당나라 군사
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명랑법사(明朗法師)의 건의로 낭산 남쪽 신유
림에 절을 세운다. 또한 그 곳에서 명랑을 비롯한 유가승(瑜珈僧)들
이 오방신상을 만들고 ‘문두루필밀법(文豆婁秘密法)’을 행하였고,
그 직후 신라로 침략하던 당군의 배가 서해의 풍랑으로 인해 침몰했
다는 이야기이다. 그 후 문무왕19년(679)에 절을 고쳐 짓고 ‘사천왕
사’라고 하였다(〈사진 22〉).

나당전쟁 직후, 사천왕사라는 이름으로 사찰이 새롭게 창건되었
다는 것은 사천왕사가 『金剛明經』 「四天王品」에 근거한 호국불교와

35) 신라에 『金光明經』이 유입된 시기를 통일전후로 보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김상현, 「고
려시대 호국불교 연구-금광명경 신앙을 중심으로」, 『학술논총』1, 단국대 대학위, 1976, p.
13.); 金相鉉,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義」,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7, 1996, p. 131.

36) 『三國遺事』紀異 第二 文武王法敏

관련된 사찰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사천왕신상은 신라에서 적극적으로 발전·전개되는데, 이는 경주지역 불탑 조성 시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682년경 조성된 호국사찰 감은사에 서는 동·서삼층석탑의 금동사리기 외함(外函)에 사천왕상을 배치하였다<사진 23>. 그리고 7세기 말~8세기 초에 건립된 나원리 오층석탑 역시 금동사리기 네 면에 사천왕상을 두었다. 8세기 중엽에 와서는 사천왕상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되는데, 바로 그 시작점이 석굴암의 사천왕상과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 탑신의 사천왕상으로 볼 수 있다. 9세기 이후에는 다수의 신라 불탑의 탑신에서 사천왕상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말여초(羅末麗初)에 조성된 승탑(僧塔)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³⁷⁾

이를 정리하면, 신라에서 불탑 탑신의 부조상이 8세기 중엽을 기



〈사진 23〉

감은사 동삼층석탑 사리외함 사천왕상

37) 강삼혜, 「羅末麗初 僧塔 塔身 浮彫像 研究」, 『美術史學研究』, 2006, pp. 81-116.

점으로 금강역사상에서 사천왕상으로 교체된 이유는 『金光明經』의 유입과 함께 사천왕신앙의 유행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신라에서 사천왕신앙이 대두될 수 있었던 것은 호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인 사천왕사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7세기까지 신라불교에서 불법의 수호자 역할은 금강역사가 주로 담당하였다. 이는 분황사 석탑, 황룡사 동편제사지, 계유명 전씨(癸酉銘 全氏) 불비상³⁸⁾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7세기 후반 사천왕사 조성과 함께 불법의 수호자 역할로서 사천왕상이 새롭게 등장한다.³⁹⁾ 이후 불탑과 불사리 수호의 역할은 금강역사에서 사천왕으로 교체되었다. 이러한 사천왕신앙의 유행은 신라 불탑 부조상에서 금강역사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사천왕의 수가 늘어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2. 불탑 상층기단의 팔부중상 도상 변화 : 쌍탑

신라 불탑 부조상 중 팔부중상만큼이나 복잡한 도상은 없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신라 불탑 부조상 중 팔부중상은 다른 존상들에 비해 조각된 사례가 많다. 또한 존상 자체가 8구로 구성되기 때문에 많은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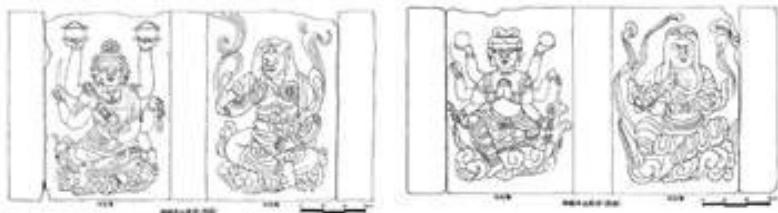
38) 7세기 후반에 조성된 癸酉銘 全氏 불비상에서도 아직 사천왕상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金剛力士像이 불상을 수호하고 있는 모습이다.

39) 679년 조성된 사천왕사는 분명 목탑이나 금당과 같은 전각 속에 사천왕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에는 사천왕사 목탑 출토 녹유벽전의 인물상을 사천왕으로 보기도 했지만, 발굴조사 결과 이 인물상은 3중으로 밝혀져 四天王像으로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四天王寺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절이라면, 적어도 四天王像은 금당과 같은 佛殿 내부에 주존으로 혹은 본존불상과 함께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라 통일기 쌍탑가람의 유행은 실제 신라 불탑에 장엄된 팔부중상의 수가 더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 때문에 신라 불탑 팔부중상은 그 도상, 형식, 그리고 배치 문제에 있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더욱이 팔부중상의 경우 여러 경전에서 언급되기는 하지만, 그 도상과 배치관계에 대한 기록은 없어 도상적으로 기준을 둘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신라 불탑 팔부중상의 도상 문제는 결국 현재 남아 있는 불탑의 팔부중상에서 해결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팔부중상이 새겨진 신라 석탑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탑으로는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창림사지 삼층석탑과 또한 비슷한 시기로 추정하는 전 담엄사지 출토 석탑재, 그리고 8세기 후기~9세기 초기작으로 추정하는 천관사지 출토 석탑재 등이다. 이 탑 혹은 탑부재들은 일탑이거나 혹은 일탑에 사용된 부재들로 추정하는데, 모두 1매의 판석에 1구씩 팔부중상을 조각하였다. 하지만 9세기 이후 불탑 팔부중상은 대다수가 1매의 판석에 2구씩 팔부중상이 조각되어 앞선 시기 팔부중상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불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 팔부중 도상의 변화를 살펴보자.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감지되는 상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겠다. 먼저 시기에 따른 도상변화가 분명한 상으로는 아수라상을 들 수 있다. 즉 창림사지(8세기 중엽), 전 담엄사지(8세기 중엽), 경주 남산동 서삼층석탑(8세기 후반~9세기 초)에서는 아수라상이 8臂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8臂의 형태는 신체에 붙어서 조각된 左右 2臂는 위·아래 비대칭으로 위치해 있고, 밖으로 펼쳐진 좌우 6臂는 각각 대칭구도를 이룬다. 그런데 8세기 말~9세기 초의 송복사지 삼층석탑의 아수라상



〈사진 24〉 숭복사지 동서삼층석탑 팔부중 도면(건달바 · 이수라/신용철 논문 전제)



〈사진 25〉 인왕동 사지 동서삼층석탑 팔부중(건달바 · 이수라)

은 같은 8臂의 형태이지만, 동 · 서탑 이수라상의 손 모양이 서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사진 24〉. 즉 숭복사지 동탑 이수라상은 기존 8세기 상과 동일한 형식을 유지하지만, 서탑 이수라상은 신체에 붙어서 조각된 2臂가 합장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합장한 모습의 이수라상은 숭복사지 동탑에서 처음 확인되고, 9세기 이후 조성된 6臂 이수라상에서는 거의 모든 상이 동일도상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8세기에 보이지 않던 합장형 이수라 도상이 숭복사지 동탑에서 새로 생겨나고, 뒤이어 인왕동사지 동 · 서삼층석탑 팔부중상에서는 합장한 도상과 함께 다시 6臂의 이수라상이 새롭게 등장한다. 이러한 6臂와 합장한 모습의 이수라상은 경주지역 뿐만 아니라 강원도 양양의 진진사지, 고성 of 신계사지 석탑 등 9세기 이후 조성된 신라 불탑에서 계속해서 보이는 특징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도상은 건달바상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건달바 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사자피(獅子皮)를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 도상적 특징은 창림사, 전 담엄사, 남산동 서삼층석탑 등 8세기 팔부중상 뿐만 아니라, 이후 9~10세기에 조성된 석탑 팔부중상에서도 모두 확인된다. 반면 비파(篋篋)를 든 건달바 도상은 8세기 팔부중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인왕동사지 삼층석탑 팔부중상에서 처음 확인된다. 즉, 창림사, 전 담엄사, 남산동 서삼층석탑의 건달바상은 아무런 지물 없이 무인(無印)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인왕동사지 출토 건달바상 2구 중 한 구는 기존과 같은 지물이 없는 도상을 보이는 반면, 다른 한구는 비파(篋篋)를 들고 있는 새로운 도상이다<사진 25>. 앞서 살펴본 숭복사지 동·서삼층석탑 아수라상과 같이 인왕동사지 출토 건달바상 역시 한 구는 기존의 도상을 따르는 반면, 다른 한 구는 새로운 도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았지만, 분명한 것은 신라 팔부중상의 도상 변천은 쌍탑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철 선생은 이미 「八部衆 圖像 전개에 있어 雙塔의 역할」이라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⁴⁰⁾ 이 글의 논지는 부조상이 나타나는 신라 쌍탑은 동일 도상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8세기 말~9세기 초 팔부중상이 쌍탑에 등장함으로서 자연적으로 팔부중 도상변천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필자 역시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한편 신라 불탑과 관련하여 대칭 속 비대칭의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과제를 남긴다.

즉, 탑신 문비좌우에 배치되는 금강역사상은 각각 1구씩 대칭으로 존재하지만, 그 자세를 비롯해서, 표정, 지물 등은 서로 달리 하는 경

40) 신용철, 앞의 글, 2014 참조.

향이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682년 조성된 감은사 동·서삼층석탑은 두 탑이 비록 같은 모습으로 조성되었지만, 그 안에 봉안한 사리기는 동·서탑 서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다. 또한 장항리사지 동·서오층석탑의 경우는 1층 탑신에 조각된 금강역사상이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이라, 조성시기를 달리하는 것인지 혹은 조각장인의 기술 차이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쌍탑 팔부중상의 도상 차이 역시 동일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칭 속 비대칭의 극대화는 불국사의 삼층석탑과 다보탑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신라인들의 기호에 맞았던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연구를 기대한다.

3. 탑신 부조상과 기단 부조상의 위계 :

경주지역 불교문화의 보수성

앞에서 신라 불탑 부조상, 특히 금강역사상, 사천왕상, 팔부중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신라 불탑 부조상의 위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주지역 불탑 부조상은 다른 지방에 소재하는 불탑 부조상에 비해 존상의 구분과 그 위치가 비교적 분명하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금강역사상과 사천왕상은 탑신부 이하를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반대로 팔부중상과 십이지신상은 탑신부 이상으로 절대 올라가지 못한다.⁴¹⁾ 또한 경주지역 불탑 부조상은 동일 공간에서 존상의 혼합이 보이지 않는다. 즉, 佛塔 부조상으로 사천왕상, 금강역사상, 팔부중상, 십이지신상은 동일한 공간에서는 동일 존상만 배치가 허락된다.



〈사진 26〉 원원사지 동삼층석탑



〈사진 27〉 원원사지 동삼층석탑 세부

이러한 두 논리가 경주지역 불탑 부조상에서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사진 26, 27). 그에 비해 8세기 후반~9세기 작으로 추정하는 구례 화엄사 사사자석탑의 경우는 1층 탑신이라는 공간에 사천왕상, 금강역사상, 범천·제석천까지 다양한 존상이 함께 배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법주사 석탑편의 상층기단에는 사천왕, 범천·제석천, 합장공양상, 천인상 등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⁴²⁾

위와 같은 현상은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즉, 영양 현일동 석탑과 화천동 석탑의 경우 팔부중 도상 일부만 포함된 8구의 신장상이 상층기단에 배치되고, 금강산 장연사

41) 물론 앞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경주 입실리 출토 석탑이나, 금곡사지 석탑의 탑신부에는 佛像이 조각되기도 한다.

42) 허형옥, 「통일신라 석탑 浮彫像의 종류와 구성」, 『영원한 생명의 울림-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p. 326.

(長淵寺) 석탑은 구례 화엄사 사사자석탑의 1층탑신 부조상과 유사하게 범천, 제석천, 사천왕, 금강역사상이 상층기단에 배치된다. 광양 중흥산성 석탑의 경우는 공양상 2구, 사천왕상, 금강역사상이 석탑 상층기단에 함께 조각되었다.⁴³⁾ 이처럼 경주지역 외에서는 8세기 후반 이후부터 신라 석탑 부조상의 도상이 혼합되는 양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경주지역 외에는 불탑 부조상에 있어 각 존상별 위치도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경주지역 불탑 부조상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에 비해, 경주지역의 불탑 부조상의 각 존상별 배치와 위치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왜 이렇게 경주지역 불탑 부조상에서만 유독 엄격한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부조상의 첫 등장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라 불탑 부조상의 첫 도입은 경주지역 불탑에서 이루어졌고, 경주지역에서는 그 첫 번째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금강역사상과 사천왕상은 초층탑신, 팔부중과 십이지신상은 상층기단이라는 규칙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 규칙은 각 존상(四天王, 八部衆, 十二支神)의 위계를 고려한 배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수성이 강한 경주지역 불교문화는 이 전통적인 규칙을 끝까지 계속 유지하고 고집했던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43) 허형욱, 앞의 글, 2008, p. 328.

V. 맺음말

지금까지 경주지역에 소재하는 신라 불탑 부조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에서는 경주지역 신라 불탑 부조상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경주지역에 불탑이 존재하거나 혹은 출토지(경주지역)가 비교적 분명한 탑부재만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모두 19건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쌍탑인 예는 사천왕사 동·서목탑을 포함하여 총 8건이다.

둘째, 불탑 부조상의 종류와 도상 특징, 그리고 그 조성시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경주지역 신라 불탑 부조상으로는 금강역사상, 사천왕상, 팔부중상, 십이지신상 등이 주를 이룬다. 물론 9세기 이후에는 불탑 탑신에 불상이 조각된 예도 있지만, 본고에는 논지전개상 제외하였다. 그리고 해당 부조상의 현상과 그 도상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고, 각 부조상의 조성 시기는 기존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학계에서 인정하는 통상적인 편년을 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라 불탑 부조상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신라 불탑 부조상이 왜 이렇게 다양한 도상과 형식, 그리고 배치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주지역 신라 불탑 부조상은 새로운 신앙의 도입과 유행, 쌍탑의 출현, 그리고 위계를 철저히 고려한 배치 등을 통해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樣相을 띠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東京通志』
- 『合部金光明經』

- 姜友邦, 『원웅과 조화』, 열화당, 1990
- 강우방, 『법공과 장엄』, 열화당, 2000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지역 폐사지 기초조사연구』, 2012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 녹유신장벽전』, 2012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傳仁容寺址』 발굴조사보고서, 2012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 발굴조사보고서』Ⅱ, 2013.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錫杖寺址』 발굴조사보고서, 1994.
- 문명대, 『원웅과 적조미』 한국의 불교조각3, 예경, 2003
- 小場恒吉, 『慶州南山 佛蹟』, 조선총독부, 1940
- 장충식, 『新羅石塔研究』, 1987

- 강삼혜, 「羅末麗初 僧塔 塔身 浮彫像 研究」, 『美術史學研究』, 2006
- 고유섭, 「慶州 獐項里 廢寺址 東西伍層石塔」, 『고유섭전집1』, 동방문화사, 1994
- 김동하, 「『三國遺事』義解 良志使錫條의 “天王寺塔下八部神將” 記錄 검토」, 『新羅文化』, 44, 2014
- 김상현, 「고려시대 호국불교 연구-금광명경 신앙을 중심으로」, 『학술논총』1, 단국대 대학원, 1976
- 金相鉉, 「四天王寺의 創建과 意義」,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7, 1996
- 김지현, 「경주 구항동 塔址의 石塔材 고찰 : 異形石塔設에 대한 再論을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제20집, 2015

- 김지현, 「경주 장항리사지 오층석탑의 浮彫像 고찰」, 『동양미술사학회』12, 2011
- 김지현, 「新羅 佛塔의 형식과 金剛力士 浮彫像 研究」, 『文物研究』 제25집, 2014
- 김지현, 「통일신라 佛塔의 四天王像과 그 의미」, 『文物研究』 17, 2010
- 大西修也, 「獐項里 廢寺出土의 石造如來坐像의 復原과 造成年代」, 『考古美術』125, 한국미술사학회, 1975
- 문명대, 「한국 탑浮彫像 연구(1)-신라 인왕상(金剛力士像) 고찰」, 『불교미술』4, 동국대학교박물관, 1979
- 신웅철, 「慶州 南山 昌林寺址 三層石塔의 研究 : 石塔의 編年과 八部衆像 成立」,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신웅철, 「統一新羅 八部衆像의 考察」,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제24집, 2003
- 신웅철, 「경주 천군동 피막곡사지 석탑의 고찰」, 『慶州文化』 9, 2003
- 신웅철, 「統一新羅 石塔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신웅철, 「국립박물관 소장 慶州출토 八部衆面石의 원소재지 검토」, 『美術史論壇』29, 2009
- 신웅철, 「新羅 八部衆 圖像 전개에 있어 雙塔의 역할」, 『정신문화연구』 33권, 2014
- 심효섭, 「신라 사천왕신앙의 수용과 전개」, 『동국사학』30, 1996
- 임영애, 「사천왕사지 塑造像의 尊名」, 『미술사논단』 27, 2008
- 임영애, 「신라 佛塔 탑신(塔身) 浮彫像의 추이」, 『先史와 古代』 제35집, 2011
- 장충식 「統一新羅 石塔 浮彫像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1982
- 최성은, 「통일신라 사천왕사 녹유소조신장상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신라사학보』26, 2012
- 허형욱, 「통일신라 석탑 浮彫像의 종류와 구성」, 『영원한 생명의 울림-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Relief figures in Buddhist pagodas of Silla Dynasty

Focused on Gyeongju ares

Kim, Dong Ha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article focused on the research of relief figures in Buddhist pagodas during Silla dynasty in Gyeongju. Among 19 Buddhist pagoda reliefs which were clearly identified discovery site, 8 cases of twin pagodas reliefs were found such as Sachunwangsa temple's. With the study of relief style and iconography, I tried all into chronological list.

Main topics of pagoda reliefs are consists of 4 different guardian subjects such as Vajra Guardian, Four Cardinal Guardian, Eight Devas and 12 Zodiac Guardian. Some exceptional pagodas showing Buddha images on the pagoda relief in 9th century were excluded in this article. Stairs in the pagoda were commonly installed in 2 sides or 4 sides, rarely 1 side too.

This dynamic diversity in pagoda reliefs were caused by active influx of new Buddhist philosophy and technical development in pagoda construction. This made new twin pagodas construction and vertical distribution with hierarchical order.